안성군

"상여소리" 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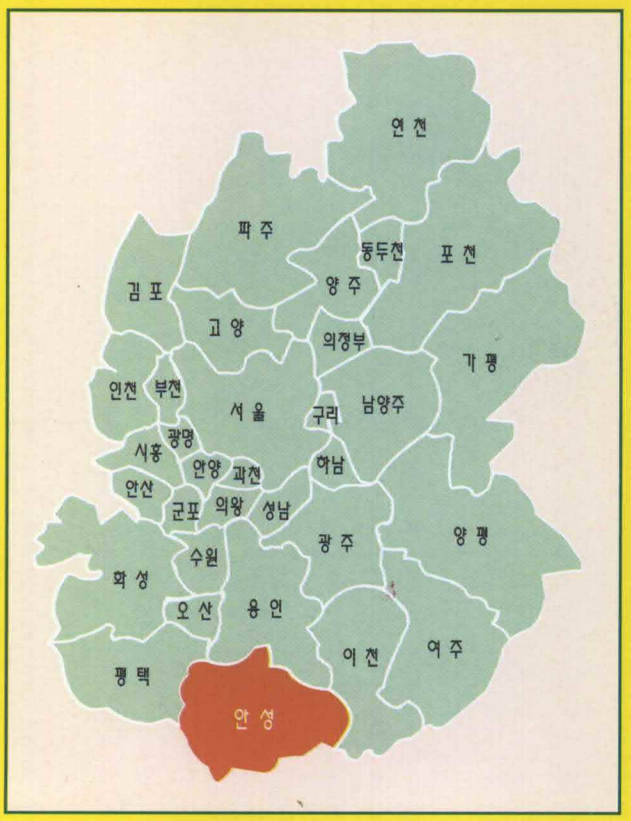
·

지경다지기

·

남사당 풍물놀이

·



상여소리 재연

1. 전승지

안성군 도계면 풍정리

2. 유래 및 해설

사람이 죽음을 당하여 취하는 예로써 옛 진사(벼슬)의 죽음을 안성 지방의 상례를 재연하여 사람의 생전의 영화와 삶을 마무리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한 민속놀이다. 현 물질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재연은 상여의 출발 전 마당에서 절차와 상두꾼의 험난한 상여 길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대목을 재연하여 협동하는 상두꾼의 재능을 보인다. 상여가 다 건너오면 산약을 하는 장소로 가서 상여를 내려놓고 안장하여 폐백을

올리고 나면 삽으로 취토를 한 다음 달구질을 한다.

3. 구 성

아들 형제, 딸 2의 사주(내외 8명과)와 상두꾼 10장(10명), 명정 1, 공포1, 혼백 1, 요량 1, 산약(산에서 묘를 만드는 사람 - 삽 4, 괭이 1, 가래 3), 요리(부녀자 - 밥 2, 국 2, 찬 2, 술 1), 조객 26명 등 총 약 6~70명 출연

1) 줄거리

(1) 상례(喪禮)

사람이 죽음을 당하여 행하는 의례를 상례라 한다. 상례는 죽은 사람을 다루는 의례기에 시신과 더불어 육체를 떠난 영혼을 취급하는 의례이다.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것이 자식의 탓 이라고 생각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상주를 죄인 취급하였으며, 또 조상숭배하고 속죄하는 의례가 많았다. 그래서 상례를 흉사(凶事)라고 하기도 한다.

(2) 초종례(初終禮)

초종은 운명하여 염하기 전까지 절차이다. 임종, 고복, 수사, 발상, 호상소설치, 부고 등이 초종례에 포함된다.

부모가 위독하여 소생할 가망이 없으면 남자는 사랑방에 여자는 안방에 옮겨 임종을 준비한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힌 다음 방안을 정결히 하고 자손들이 모여 조용히 부모의 손은 잡고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본다. 이를 '임종' 이라 하는데 자식으로서 부모의 임종을 보지 못하면 큰 불효라고 생각해 왔다.

죽음은 출생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코와 입 사이의 인중에 솜을 놓아 숨이 끊어짐을 확인하다. 숨을 거둔 것이 확인되면 홑이불로 망인의 시신을 덮고 통곡은 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방안에서 곡이 울려 나오면 밖에서는 고복을 한다. 떠난 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잠시 곡을 그치고 망인의 웃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 왼손으로 옷깃을,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흔들면서 주소, 성명을 외치고 복, 복, 복, 세 번 되풀이해서 외친다. 지붕에 오르지 않고 대문간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다. 여자의 경우 본관을 외친 뒤 복, 복, 복 세 번 되풀이 해서 외친다.

고복을 한 뒤 사자상을 대문간에 차리고 상주는 재배한다. 사자란 망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신으로 흔히 세 사람의 사자가 인도한다고 생각하여 밥세 그릇, 짚신 세 켤레, 동전 세 개를 밥에 꽂아 둔 다음 사자에게 망인을 잘 인도 주길 빈다.

한편 시신이 있는 방에서는 시신의 자리를 옮기고 수족을 반듯이 정돈하여 옷을 입힌 채 시신을 일곱 매듭으로 묶어 칠성판 위에 놓는다. 칠성판 위에 시신을 모신 다음 종이로 묶어 창호지로 덮은 다음 병풍을 치고 돗자리를 깐다.

상주는 두루마기를 입는데 부(父)상이면 왼쪽 소매만 끼우고, 모상이면 오른쪽 소매만 끼운다. 상주들은 모두 패물은 벗어 두고 복상한다. 상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상으로 정한다. 호상은 상가의 출납과 부고의 발송에 책임을 지며, 상중의 모든 일을 상주와 논의 하여 처리한다.

근래의 부고는 상기문에 장지의 소재, 또는 영결식일자와 장소 등을 기입하고 아들 외에

손, 부, 여, 제, 매 등을 기입하고 있다. 이는 부고를 받는 사람의 편의를 주는 이점이 있다.

〈염〉

염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 입히는 절차이다. 염을 하기 전에 혼백을 접어서 흰 종이 상자에 넣었다가 염이 끝나면 영좌를 설치한다.

혼백은 또 관을 짤 때 만들기도 한다. 시신이 남자인 경우 집안 어른이 습염을 하며, 여자인 경우 친구나 동네 노파가 맡는다. 수의와 이불을 준비하고 판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시신을 흰 천으로 덮은 다음 옷을 벗기고 목욕은 시킨다. 미지근한 물에 향나무를 넣어 향수로 머리 부분에서 발끝까지 씻는다. 옷은 아래로부터 위로 입힌다.

염의로 적삼, 바지, 두루마기 등을 입히고 버선을 신기고 손에는 옥수를 끼우고 얼굴은 면건을 씌운다. 손톱, 발톱은 깨끗이 깍아 조발랑에 넣어 소매와 버선 등에 넣어준다. 염이 끝나면 판사라 하여 물에 불린 쌀을 입속에 나무 수저로 떠 넣고 동전을 넣는다. 이때 쌀도 돈도 세 번씩 넣는다.

판사에 이어 시신에 장매를 감싸고 몸의 부위를 일곱으로 나누어 어긋나게 매어 묶는다. 입관할 때는 시신이 들어가고 난 빈 곳에 창호지나 생전에 입던 비단옷을 함께 넣게 한다. 시신 위에 천을 덮고 관두껑을 닫은 다음 나무 못을 친다. 입관 때 망인을 마지막 보는 것이라고 하여 자녀들은 통곡한다.

입관이 끝나면 관 위에 누구의 관(남자), 누구 누구의 관(여자)라 쓴 다음 결관 밧줄로 묶고 짚을 묶어 종이로 감싸서 홑이불을 덮은 다음 병풍을 가려 둔다.

입관 후에 혼백을 영좌에 모시고 명정을 만들어 오른편에 걸쳐둔다. 영좌는 명정 위에 혼백을 모시는데 그 앞에 제상을 모시는데 그 앞에 제상을 놓아 제물을 진설하고, 그 앞에 향석을 놓아 향합, 향로, 모사, 퇴주그릇을 놓는다.

입관 후 성복제를 지낸다. 마당에 자리를 깔고 맏상주가 북향 재배한 뒤 상주들은 각자 복제에 따라 소복과 두루마기를 입고 영좌 앞으로 나아가 제를 지낸다. 또한 마당에 정화수 한 그릇을 소반 위에 바치고 남녀 사주가 서로 마주보고 서서곡을 하면서 상복으로 바꾸어 입은 다음 모두 맞절을 하기도 한다.

성복제는 맏상제가 헌주, 정작, 진판, 아헌, 삼헌, 재배 등의 순서로 지낸다.

성복제가 끝나면 상청을 꾸미고 조객의 인사를 받는다. 조객은 집을 나와서 상청에 이를 때까지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으며 상청에 들러 상주에게 조문을 한 다음 호상소에 들른다.

〈치 장〉

치장은 시신을 매장하는 절차이다.

행상일이 되면 아침에 상두꾼을 시켜 상여집에 가서 상여를 가지고 와서 꾸민다. 상두꾼의 일부는 산역을 한다. 상여가 다 꾸며지면 시신을 내어 모시기 위해 상주나 복인이 방에 들어가 관을 들어 옮길 때 문지방에 걸쳤다가 나오면서 바가지를 엎어 놓고 깨뜨리며 나온다 관을 상여 위에 얹거나 앞에 두고서 발인제를 지낸다. 상여 앞에 제물을 차리고 맏상제만 단헌, 고축 곡으로 끝낸다.

제물은 상두꾼과 조객을 대접한다. 상여가 집을 출발하기에 앞서 상두꾼들이 상여를 멘 다음 가족과 집을 향해 3번 맞절을 하고 떠난다.

상여가 북잽이와 소리꾼에 의해 인도되면

명정, 공포, 혼백, 상여, 상주, 조객 등의 순서로 행렬을 지어 묘지까지 간다. 상여가 친지 집을 지날 때는 노제를 지낸다. 노제의 제물은 친지 집에서 내지만 제주는 맏상제가 된다. 개울이나 다리를 건널 때는 정상을 하고 언덕이나 산을 오를 때도 정상한다. 정상할 때마다 복인이 술값이나 담배값을 내놓는다. 상여는 흔히 12명이 메는 작은 상여를 사용한다. 상여를 메고 나가서 묘지까지 가는데는 소리를 하며 간다.

상여소리

어허 어허어 어허 어허어
여보소 상두군들 어허 어허어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어허 어허어
이세상에 나온사람 어허 어허어
뉘덕으로 나왔는가 어허 어허어
하느님 은덕으로 어허 어허어
어버님전 뼈를 빌고 어허 어허어
어머님전 살을 빌어 어허 어허어
칠성님전 명을 빌고 어허 어허어
제석님전 복을 빌어 어허 어허어
석가여래 공덕으로 어허 어허어
이세상에 태어날제 어허 어허어
석달만에 피를 모으고 어허 어허어
여섯달 만에 육승이 생겨 어허 어허어
십삭만에 태어나니 어허 어허어
한두살에 철을 몰라 어허 어허어
부모은공 갚을 쏜가 어허 어허어
애혹한 고생살이 어허 어허어
이삼십을 당도하니 어허 어허어
애혹한 이내운명 어허 어허어
이팔청춘 다가고서 어허 어허어
백발이 웬말인가 어허 어허어
여봅소 세상님네 어허 어허어
이내말씀 들어보소 어허 어허어
이제가이면 언제오나 어허 어허어
오실기약 전해주소 어허 어허어
죽은 남기 꽃이지고 어허 어허어
잎이나핀들 돌아올까 어허 어허어
가마솥에 곧는개가 어허 어허어
와광쾅 짖은들 어허 어허어
병풍에 그린 수탉 어허 어허어
날개를 치며 울어본들 어허 어허어
어찌다시 돌아올까 어허 어허어
여봅소 세상님네 어허 어허어
이내나말씀 들어보소 어허 어허어
일가친적이 많다한들 어허 어허어
어느일가가 대신가며 어허 어허어
친구나 벗이 많다한들 어허 어허어
어느친구가 동행할까 어허 어허어
여봅소 벗님들아 어허 어허어
백발이라 웃지마라 어허 어허어
우리도 젊어졌긴 어허 어허어
이팔청춘 행핫건만 어허 어허어
무세월이 여류하니 어허 어허어
백발이 웬수로다 어허 어허어
(중략)
명사십리 해당화야 어허 어허어
꽃진다고 설어마라 어허 어허어
명년삼월 봄이 오면 어허 어허어
너는 다시 피려니와 어허 어허어
초로같은 우리인생 어허 어허어
어찌한번 죽어지면 어허 어허어
잎이날까 싹이날까 어허 어허어
초로같이 썩어지니 어허 어허어
다시올날 기약없네 어허 어허어
여보소 상두꾼들 어허 어허어
마지막 가는길에 어허 어허어
곱게곱게 잘모시어 어허 어허어
극락세계인도하소 어허 어허어
어~허 어~허

출상날 아침 산역을 하기 전에 산신제를 지낸다 복인이 아닌사람 중에서 시신을 안 본 사람이거나 삼재가 끼지 않은 사람을 주, 과, 포를 진설하고 고시하며 산신제를 지낸다. 제물의 일부는 산에 버린다.

산신제와 개토제는 다른 것이나 흔히 산신제와 개토제를 겸하여 제를 지낸다. 묘지에 상여가 도착하면 관을 내려 안치하고 영좌를 설치하여 조객을 받는다. 하관시를 기다려 복인들이 결관 밧줄을 끌러 하관한다. 하관을 하고 난 다음에 관위에 명정을 덮고 맏상제가 흙을 떠서 세번 실토하고 이어서 복인들이 여러 삽 실토를 하고 달구질 소리와 함께 땅을 단단하게 다지게 된다.

- 달구질 소리

좌청룡 우백호 뒷산은 높고
대명당이 분명하다
북악을 돌아 이산판에
에-헤루 달고질소리에
달고질소리를 썩잘하면
에이루 달고질 소리에
앞내물 구비구비
백두산 낙맥이
이 명당이 되었구나
산천정기가 다모여든다
오시하관에 미시발복하리로다
상제님(상주님)의 눈물이 막힌다.

평토가 끝나면 망인의 성명과 묘지의 좌향을 적어 놓은 지석을 묘지를 향해서 오른쪽 아래 묻는다. 평토제를 삼헌, 고축, 곡의 순서로 지낸 뒤 제물을 상두꾼들이 먹도록 남기고 퇴혼한다. 묘지에는 상제와 족인은 모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분한다.

퇴혼- 상제가 혼백과 신주를 영여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상제들이 곡마중을 나온다. 퇴혼한 혼백은 신주 뒤에 모신다. 지역에 따라 퇴혼 후에 신주를 써 붙이기도 한다. 맏상제가 문향재배한 뒤 혼백을 태워 없애고 단헌, 고축으로 퇴혼제를 지내면 모두 곡한다. 실제로 퇴혼은 혼백을 모시고 돌아와 제를 지내고 신주로 혼백을 대신하는 절차이다.

지경다지기

1. 전승지

안성군 일대

2. 해설 및 유래

집터가 지심에 대하여 바로 선 곳이라야 집이 곧게 버텨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경 달기는 필요한 것이다. 집을 짓자면 먼저 집터가 정해져야 되고 집터가 정해지만 주산에 고사 지내고 이어서 터주께 고사 지내 동티가 나지 않게 해야만 터주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서 의식과 더불어 지경 달기 행사를 벌여 지심을 찾아 바로서는 다지기 작업을 신명나게 벌이는 것이다. 그래야만 집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집에 온전하게 세워져서만 사람

의 따뜻한 마음과 기운과 몸이 보호될 것이다. 집터는 터주의 보호와 동티 막이를 받아서만 당이 단단하게 다져지나니 고사를 통해 비나리 하여야 쉬이 일은 성사되리라.

터주는 지신이니 삼신의 쓰임에서 비롯되었기에 고사 지내면 삼신께도 그 비나리는 닿아 동티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리라. 지신은 음을 좋아하므로 밤에만 활동을 한다고 한다. 때문에 지경 달기를 밤에 벌이는 것이다. 집터 지신불이 할 때 선소는 소리친다.

진신, 지신, 지신아. 집터 지신을 울려라.
지심 바라 곧게 가라. 가로 질러라.
집터는 황토요 명당이다.
동방은 청룡이요
남방은 주작이요
서방은 백호요
북방은 현무요
중방은 환웅이라
경오년 해우년 월건은 을유. 일진은 계사(갑오)라 터주 님께 발원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명이 짧은 사람에겐 장수하게 하옵시고
복이 박한 사람에겐 부귀하게 하옵시고
자식 없는 사람에겐 자손창성 주옵시고
병이 깊은 사람에겐 낫게하여 주옵시고
농사 짓는 사람에겐 풍년들게 하옵시고
장사 하는 사람에겐 재수대통 주옵소서
왕성한 명당기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기여차 터줏님 만대복락 누리소서

삼신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 하사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상제님이 되시더니 하나를 풀어 셋 쓰임 위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어 사람으로 하여금 천신, 지신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지신의 은혜를 입어 터주의 보호 아래 집터를 정하고 집을 세우고, 방을 꾸미는 본디 뜻을 좇아 성주신께 비는 것이 아닌가?

삼신은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지상에 내려보내 천하대장군을 다섯 임금인 파랑, 빨강, 하양, 까망, 노랑을 주관케 하고, 지하여장군은 다섯 신령인 한남, 한불, 한금, 한물, 한흙을 주관하여 이루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승은 서낭당 터에 버티고 서서 집집마다 5방신을 고루 배치하고 5령신을 움직여 사람과 만물을 살게 하여 주는 것이다.

3. 구성 및 줄거리

1) 준비물

(1) 농기 (농자천하지대본)
(2) 지경돌 3개
(3) 지경목 3개
(4) 횃불막대 6개
(5) 사물 (꽹과리, 징, 장고, 북)
(6) 가래삽 (5인용) 2개
(7) 제물 : 막걸리, 명태
(8) 신위 2점
산신(석정마을 주산 신위)
지신(명당 터주 신위)
(9) 옷 86명치
(10) 짚신 86명치
(11) 기타 여러가지

2) 지경돌

지경돌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경돌 양쪽에 구멍을 파서 나무토막을 단단히 박아 그곳에 지경줄을 매어서 쓰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지경돌 허리쪽을 단단하게 굵은 철사로 여러겹 묶은 뒤 그곳에 지경줄을 엮어서 쓴다.

크기는 높이 두자, 너비 1.5~2자 쯤 되는 것을 쓰는데 지경 다지기가 끝나면 그 돌을 집 짓는데 쓰기도 하였다.

3) 인원 편성

(1) 집주인 1명

(2) 마당쇠 1명

(4) 지경돌꾼 3개 18명 = 54명

(5) 지명목꾹 5개 3명= 15명

(6) 기잡이 1명

(7) 잽이 4명

(8) 횃불꾼 6명

(9) 여장 3명

(10) 동네사람들 무제한

계 86명 + 무제한의 동네 사람들

4) 주산 산신풀이

(1) 길 쇠

농기를 앞세운 지경달기 한패가 길쇠를 치며 주산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2) 순 서

① 농 기 1명
② 선 쇠 1명
③ 주 인 1명
④ 마당쇠 1명
⑤ 잽이들 4명
⑥ 횃불꾼들 6명
⑦ 지경돌꾼들 54명
⑧ 지경목꾼들 15명
⑨ 여 장 3명
⑩ 나머지 동네사람들

주산에 이르면 기잡이는 농기를 정면에 세우고 길쇠는 자진가락을 치며 주산의 신위를 중심으로 한바퀴 돈다. 그동안 여장은 제물을 가져오며 주인은 제물을 진설하고 신위를 모시어 고사 지낸다.

(3) 주산 산신풀이

선쇠 : 산신, 산신, 산신아. 주산 산신을 올려라.
잽이 : 장단
선쇠 : 삼신께서 천지열고
잽이 : 장단
선쇠 : 천지가 열린 후에 일월성신 밝았다.
잽이 : 장단
선쇠 : 일월성신 밝아드니 산천이 열렸다.
잽이 : 장단
선쇠 : 산천이 정기 내려 백두대간 솟았고
잽이 : 장단
선쇠 : 백두대간 정기내려 아리두문 송화강
잽이 : 장단
선쇠 : 두만강이 정기먹어 금강산이 솟았고
잽이 : 장단
선쇠 : 금강산이 정기내려 임진강이 흐르고
잽이 : 장단
선쇠 : 임진강이 정기먹어 설악산이 솟았고
잽이 : 장단
선쇠 : 장단성악산이 정기내려 큰한강이 흐르고
잽이 : 장단

선쇠 : 큰한강이 정기먹어 오대산이 솟았고
잽이 : 장단
선쇠 : 오대산이 정기내려 남한강이 흐르고
잽이 : 장단
선쇠 : 남한강이 정기먹어 청룡산이 솟았고
잽이 : 장단
선쇠 : 청룡산이 정기내려 안성천이 흐르고
잽이 : 장단
선쇠 : 안성천이 정기먹어 비봉산이 솟았고
잽이 : 장단
선쇠 : 비봉산이 정기 나눠 동네주산 솟았네
잽이 : 장단
선쇠 : 올해는 경오년, 월건은 을유, 일진은 계사.
(갑오)라. 산신님께 발원이요.
우리동네 가가 호호
잽이 : 장단
선쇠 : 나갈 때는 반짐지고 들어올 땐 온 짐지고
부귀영화 안과태평 접지하여 주옵소서
잽이 : 장단
선쇠 : 어기여차 산신님 만대 유전 누리소.
잽이 : 장단
모두함께 : 어기여차 산신님 만대유전 누리소
다같이 후렴조로 함창하면서 힘차게
발을 구르며 돈다.
이로써 주산의 산신풀이는 끝난다.

5) 집터 지신풀이

길쇠를 치며 집터로 나아간다.

집터에 이르면 기잡이는 농기를 정면에 세우고 전원 집터 둘레를 한바퀴 돌고 3열 횡대로 늘어선다.

그 사이에 여장은 제물을 가져오고 주인은 신위를 모시고 제물을 진설한다. 그리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주인은 집터 사방에 술을 뿌린다. 그런다음 집터 지신풀이로 들어간다.

선쇠 : 지신, 지신, 지신아. 집터 지신을 울려라.
(나머지는 다같이 뜀춤을 춘다)
잽이 : 장단
선쇠 : 동방 청룡
남방 주작
서방 백호
북방 현무
중방 황웅
5방 5신 터주를 울려라.
잽이 : 장단
선쇠 : 올해는 경오년년, 월건은 을유. 일진은
계사(갑오)터주님께 발원이요.
잽이 : 장단
선쇠 : 우리동네 사람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단명자 봉명장수
박복자 부귀공명
무자자 자손창성
병고자 즉득쾌차
농사자 장원하고
상업자 재수대통
왕기대통 주옵소서
잽이 : 장단
선쇠 : 어기여차 터주님 만대유전 누리소
잽이 : 장단
모두함께 : 어기여차 터주님 만대유전 누리소

다같이 후렴조로 합창하면서 힘차게 발을 구르며 집터 주위를 한바퀴 돈다.

그 사이에 지경목꾼들은 모두가 집터주위를 돌때 집터로 나아가 가래질을 한다.]

6) 지경달기

가래질이 끝나면, 선쇠는 북을 메고 선소리치며 지경돌꾼들과 지경목꾼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후렴을 받으면서 땅을 골고루

다져 나간다.

지경돌이꾼들은 지경돌을 후렴의 전반부에 들어올리고 후반부에 내리닫는 방법으로 반복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횃불꾼 밖의 둘레를 발로 달고질 한다.

선쇠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돌고)(달고)
선쇠 : 삼신께서 천지 여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천지인이 하나이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오방오제 내세우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이 집터는 황웅이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산이라면 백두메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강이라면 두만이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나라라면 한나라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사람이면 한겨레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경기도면 안성이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명당터가 떨어지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일지맥이 벌어지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안성이면 석정이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이명당이 생겼도다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비봉산을 바라보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장수대왕 춤을 추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청룡산을 바라보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부처님이 자비하다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동방제왕 청룡이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남방제왕 주작이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서방제왕 백호이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북방제왕 현무이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중방제왕 황웅이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삼태성이 뚜렸하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군자나올 명당이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노인성이 한높으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백발당상 오실터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자손봉이 층층하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내리자손 만세니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노적가리 쌓였으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억만장자 될것이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문필봉이 장엄하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큰 선비 우뚝하다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화랭이가 춤을추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온나라가 신명이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아들아기 날것이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착한 효자 으뜸이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딸아기를 볼것이니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참한 효녀 본보기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소가 나면 황희 정승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말이나면 천리마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개가나면 절터보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닭이나면 봉계이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물이나면 장군수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풀이나면 불로초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돌이나면 옥돌이고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흙을 파면 옥토로다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이런 명당 또 있을까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선쇠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모두 : 어기여차 지점이 훠이야

※ 모두 함께 합창하면서 힘차게 발을 구르며 한바퀴 돈다. 이 사이에 여장들은 술과 음식을 내오며 잽이들은 사물을 다시 잡는다. 밤 늦도록 지경다기를 끝낸 동네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먹으며 신나는 한마당 가락에 맞춰 춤판을 벌인다.

남사당 풍물놀이

1. 전승지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

2. 유래 및 해설

1) 유 래

대원군은 재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종 2년 (1865) 경복궁의 재건을 강행하여 고종 4년 (1867)에 준공하였다. 이때에 공사의 독려와 촉진을 돕기 위하여 온나라안에서 일꾼들과 더불어 농악대가 동원되었다. 전국의 농악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재주를 보인 안성 석정 농악대에게 대원군은 옥관자를 하사하였다.

그 뒤부터 그 옥관자를 두레기의 윗부분에 달고 그 깃발의 아랫부분엔 오방을 상징하는

파랑.빨강.노랑.까망.하양의 오색 삼각기를 달았다. 그리하여 안성석정농악대의 두레기가 나타나면 어느 부락의 두레기 이건간에 기수를 숙여 기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때부터 안성석정농악대의 두레기를 일러 영좌농기라 하였으며 이 농악대를 일러 영좌농악대로고 하였다.

세월이 흘러가면서는 안성농악을 영좌농악이라고 이르게 되었다. 이 영좌기의 명성은 안성뿐만 아니라 멀고 가까운 다른 지방에까지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 경복궁 중건때 하사받은 옥관자 공로는 안성 남사당패를 이끈 바우덕이에게 있다고 한다. 안성남사당의 원맥은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 불당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우덕이의 재주는 얼마나 뛰어났는지 안성 지방에 전래되고 있는 아래의 속요가 증거하고 있다.

안성 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 청룡 바우덕이
치마만 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 청룡 바우덕이
줄위에 오르니 돈 쏟아진다.
안성 청룡 바우덕이
바람결에 잘도 떠나간다.

2) 해 설

바우덕이 패는 일명 개다리패라고도 하였다 한다. 바우덕이는 청룡리 소재 청룡사를 거점으로 한 능력있는 사당이었던 바 남사당패의 말기로 볼 수있는 1900년대 초에 안성 개다리패의 유지에 큰 공헌을 끼친 사람이었다.

그러나 1990년 11월 이전까지는 그의 묘지가 버려져 황량하였고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어 봉분조차 없는 상태로 그 자취마저 없어질 지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안성 개다리패의 뒤를 이은 안성복만이패의 꼭두쇠는 안성 출신인 김복만이었고, 1935년에 가장 활발하였던 패거리로 경기도 이북을 주로 누벼 다녔다 한다.

원육덕패는 안성복만이 패의 뒤를 이었는바 그의 꼭두쇠 원육덕은 여주 출신이지만 주로 안성복만이패이던 사람들로 다시 모인 패거리다.

1939년에 만주 북간도에까지 들어와 활동하다가 해산되었다고 한다.

이원보패는 앞서 패거리가 다 없어진 뒤에서도 끝까지 남았던 패거리였다.

꼭두쇠 이원보는 안성에 살면서 끝까지 남사당 조직을 이끌고 있었느데 그는 직접 웃다리가락을 치며 서울 근교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안성남사당의 연맥은 조선조 말기의 바우덕이로부터 김복만. 원육덕. 이원보. 오함헌. 송영홍으로 이어지면서 해체되고 결성되는 수난을 거듭하면서 끈질긴 명맥을 지켜 온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생적인 남사당패는 1930년대까지로 보아야 되겠고 그 뒤 걸립패와 함께하는 등 심한 변질과정을 겪으면서도 1940년대까지는 그 자취를 보였으나 그 뒤로는 거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그 까닭은 일제의 잔악한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안성유기와 더불어 안성문화는 혹독한 탄압을 받아 거의 단절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1982년도에 들어서자 호함헌씨가 안성남사당을 재건하기 위해 되살리기운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안성군 내에 흩어져 있는 기예인들 42명을 파악하고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를 발족하여 힘겨운 출발을 내디뎌 오늘날은 큰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하주성의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도보'에 보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는 그 순수성을 지켜 웃다리가락의 모체가 되었다고 했으며 대개 남사당패의 맥은 잽이들에게 직접 전승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남사당의 쇳가락은 안성을 중심으로 한 웃다리가락의 모체로서 정통성을 이어받아 내려온 것이다.

이원보에게 맥을 전승한 지금의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본존회는 송영홍씨를 중심으로 전통웃다리가락을 치고 있다. 곧 남사당의 쇠를 이른 뜬쇠밑의 가열들이 다시 모여 안성남사당 풍물놀이의 웃다리 가락을 재현시키고 연면히 그 맥을 이어 받아 온누리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3) 특 성

남사당패의 풍물놀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장단이 이루어진 뒤에 떠돌이 판굿모임의 놀이 중 하나로 다시 엮어지고 편곡되면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본래 남사당패의 풍물놀이란 웃다리가락을 주축으로 하여 진풀이, 무동(새미놀이), 벅구놀이, 채상놀이, 선소리 등의 몸재주와 묘기에 소리(산타령, 새타령, 모찌는 소리, 놀매는 소리)까지 곁들이니 훌륭한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풍물이란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음악이며 남사당패에 의하여 떠돌이 판굿모임에 맞게 놀이성이 풍부하게 짜여진 것이다.

그런데 안성남사당패는 떠돌며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주는 지극히 뛰어나 어느 동리농악도 견줄 수 없었으며 웃다리가락의 모체로 그 순수성을 지켜온 것이다. 이 떠돌이 모임은 말기에 와서 굿중패나 사당패가 끼어들었지만 그들이 꼭두쇠를 맡는다 해도 쇠를 잡지 않았으며 남사당패의 맥을 이은 쇠잽이에게 전수된 것이다. 그 실례로 남사당의 마지막 패거리의 꼭두쇠인 이원보도 안성에 살면서 웃다리 가락을 익혔다고 한다. 때문에 남사당의 쇠가락은 안성을 중심으로 웃다리 가락의 정통성을 지켜 왔다고 본다. 이원보로부터 쇠가락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안성남사당 풍물놀이패는 전통 웃다리 가락을 치고 있지 않는가.

■ 특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웃다리가락은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가락이 고루 쓰이고 있다.
- 웃놀음인 상모놀이와 아랫놀음이 고루 발달되어 있다.
- 오방지, 사통백이, 가사백이 같은 진풀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 깨끼춤, 쾌자춤,쩍쩍이 춤 등의 무동춤과 단무동, 맞무동, 상무동, 사무동, 오무동, 친무동 등 무동타기가 발달되어 있다.

3. 구성 및 줄거리

1) 줄거리

풍물놀이의 순서와 방법은 때와 곳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특히 상쇠가 판굿에 몰입했을 때는 또 다른 변형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 남사당패의 상쇠 이원보는 특히 많은 변형의 판굿을 벌였다하며 지금의 상쇠 김기복도 판굿에 몰입 했을 때는 강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다.

(1) 길놀이

연희가 시작되기전에 단원들이 길군악 칠채가락에 맞추어 연희장소로 행진하는 것으

로 특별한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다. 길놀이는 관중을 놀이 장소로 많이 모으기 위한 것이며 군대의 행진과도 같다.

(2) 인사굿

놀이 장소에 도달하면 여장, 벅고, 사물의 순서로 횡대를 지어 상석에 인사를 하고 다시 큰 원을 만들어서 관중을 향해 인사가락에 맞추어 인사를 하다. 인사 가락은 신을 맞는 음악이라고도 하며 원을 만들어 놀이의 터를 잡는 것이다.

(3) 돌림벅구 ①

잦은 가락을 치면서 사물은 바깥 원이 되고 벅구들은 안으로 들어가 작은 원이 되어 옆걸음으로 양살을 치며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고 여장은 사물의 밖을 같은 방향으로 돈다.

원을 그리며 놀이를 하는 것은 외적인 도전에 대한 저항과 구성원들 서로 유대와 결속을 다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오방진(五方陣)

돌림 벅구에서 쇠를 딱 그치고 길군악을 치면서 오방진을 짠다. 사물이 앞서 시계반대 방향으로 감아 돌고 벅구가 뒤 따르며 여장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 상쇠가 시계방향으로 돌아 다시 반복하여 동, 서, 남, 북과 중앙에서 5번 을 하고 중앙에서는 꽉조인 다음에 잦은 가락을 치며 한 바탕 옆걸음을 치며 돌은 후에 진을 푼다.

오방진은 음양설에 의거한 방위신을 오방으로 배치한 것으로 동서남북관 중앙을 순회하여 마을의 악귀를 쫓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5) 돌림벅구 ②

오방진을 풀어서 큰 원을 만든 뒤에 돌림벅구와 같이 원을 그린 뒤에 사물과 무동은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고 벅구는 좌우전후로 움직이며 꼭두상과 양상을 치며 벅구놀이를 하고 사물과 같은 방향으로 돌며 돌림벅구를 한다.

(6) 당산벌림 ① (벅구놀이)

사물은 오른편에 벅구는 왼편에 여장은 앞쪽에 늘어 서서 U자 형으로 벌려 선다. 상쇠가 중앙에서 상쇠 놀음을 한 뒤에 사물 앞으로 뛰어가서 갱-갯--하고 서너번 치는 걸을 신호로 벅구는 일열로 서서 일채 가락에 맞추어 한 발짝씩 몇 발짝 걸어나오며 양상을

친다. 상쇠 놀음을 하며서 벅구는 활 모양으로 반원을 그리며 앉아 외상을 친다. 그 뒤에 일어서서 之자를 그리며 벅구 놀이를 하다가 사물의 앞에서 상벅구부터 옆걸음을 치며 일열로 늘어서서 양상을 친다. 다시 벅구는 원을 그리며 옆으로 앞으로 걸으며 양상을 치다가 꼬리 벅구부터 사물 앞에 옆걸음을 치며 일열로 늘어선 뒤에 양살으 친 다음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 판굿의 U자형과 벅구와 여장들의 태극형(之자형)은 진을 치는 모습이다.

(7) 당산벌림 ② (여장놀이, 벅구놀이)

벅구놀이가 끝나면 상쇠는 여장을 끌어내어 여장 놀이를 한다. 한 발짝씩 몇 발짝 나오면서 무동춤을 추다가 상쇠를 따라서 之자와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고 이때 상쇠는 황새 걸음을 걷는다. 여장을 일렬로 앉힌 다음 모심는 모양과 비슷하게 손을 땅에 찍고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돌리는 찍금 놀이를 몇 번 반복한다.

여장을 제자리에 보낸 뒤에 상쇠는 벅구앞으로 가서 벅구놀이를 시킨다. 벅구는 한 발짝씩 3보를 앞으로 나오면서 벅구를 돌리다가 일어서서 之자로 움직이다가 원을 그린후에 좌우 전후로 움직이며 양살과 꼭두상을 친다.

(8) 절구 벅구

앞의 벅구놀이를 하는 동안 여장은 왼편으로 가서 벅구가 섰던 자리로 가고 벅구는 사물을 향해서 두 줄 종대로 서서 한 줄이 앉으면 다른 줄이 서고, 또 다른 줄이 앉으면 다른 줄이 서면서 2-3회 반복한다.

절구 벅구는 절구에 곡식을 찧는 것을 연상하게 하며 식량을 표현한다.

(9) 사통백이

절구 벅구를 마친후 벅구들은 둘로 갈라져서 앞쪽과 뒤쪽으로 가서 사물, 여장과 함께 정방형을 그리며 마주 선다.

사물과 여장은 마주보며 전진하여 서로 비껴나가 돌아서면 벅구들도 서로 같은 것을 되풀이 한다. 사물, 벅구, 여자, 벅구는 4개의 작은 원을 그린 후 큰 원을 그린다. 교차 행진을 하는 것은 역동적이고 전투적인 진군을 의미한다. 한줄로 서서 김매기를 해 나가는 모습이 되기도 한다.

(10) 좌우치기

잦은 덩덕쿵 가락에 맞추어 우3보, 좌.전.후 각 3보로 한다. 이것은 전진과 후퇴를 의미하는 것 같다.

(11) 대대 옆치기

사물, 벅구, 여장 순으로 구성 인원에 따라 3-5열 종대로 선 다음 잦은 가락에 맞추어 양상을 친뒤에 우, 좌, 후, 전으로 한발씩 2-3보 움직이며 양상을 치고 제자리 돌기를 한다. 이 판굿은 군대의 제식 훈련을 연상하게 한다.

(12) 가새 백이

사물, 벅구와 여장이 두 줄을 만들어 두 개의 원을 그리며 영기 둘이 가새(가위)모양으로 만든 문을 통해서 들어 갈 때 상쇠 뒤에 상벅구, 여자장이 사이 사이에 끼면서 한 줄을 만든 후 원을 만들고 좌우 치기를 한다. 가새 백이는 가위를 상징하는 판굿이며 이는 의복을 만드는 것을 표현한다.

영기로 만든 문을 통과 하는 것은 점호를 의미한다.

(13) 쩍쩍이

쩍쩍이 가락에 맞추어 벅구와 여장은 안으로 들어가 안쪽 원을 만들고, 사물은 바깥 원을 만들어 걷고 앉았다 일어 서며 춤춘다. 이 판굿은 풍년을 기원하고 축하하는것이며, 풍년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14) 소리굿

상쇠의 선소리에 따라 "얼럴러 상사디야"하고 따라 부르며 2-3회 소리를 한다.

상사소리는 안성지방에서 모를 심은 뒤 논을 아시(처음) 맬 때 부르는 농요로써 이 판굿은 김매기를 상징하여 농경생활을 표현하는것 같다.

(15) 밀벅구

벅구는 안쪽 원, 사물은 바깥 원을 만들고 여장은 그 밖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림 벅구를 한 뒤, 벅구는 두 줄로 늘어서서 한줄이 밀면 다른 줄이 밀리고, 다른 줄이 밀면 반대편이 밀리며 벅구를 친다. 이 판굿은 품앗이와 성행위를 상징한다.

(16) 개인놀이 등

무동 타기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동안에 상쇠놀음, 징놀이, 북놀이, 장구놀이, 따벅구등 개인 혹은 단체 놀이를 하기도 한다.

(17) 무동 타기

단무동, 맞무동, 삼무동, 오무동(곡마당, 논고리)와 칠무동을 한다. 단무동은 주로 벅구 잡이들이 여장을 하나씩 어깨위에 올려서 하며 무동춤을 춘다.

맞무동은 동을 한 다음 중애를 무동을 탄 여장이 안고 밑무동은 중애를 발목을 잡고 재주를 부리며 무동춤을 추는 것이다.

삼무동은 어른 무동 한 람을 어깨 위에 올린 다음 애를 그 어깨 위에 다시 올려 3층을 만드는 것이다.

사무동은 단무동을 한 뒤 여장 두명을 양쪽에 붙이는 것이며, 오무동의 곡마당은 사무동 위에 중애를 올려서 3층을 만드는 것이다.

칠무동은 오무동 곡마당을 한 뒤에 밑무동의 어깨위에 두 여장을 앞뒤로 올려서 중무동을 등지고 서게하는 것으로서 밑무동의 강한 힘과 기술이 필요하다.

무동타기는 다산을 기원하고 무동을 신동이었다고 보고 신동을 받드는 뜻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18) 버나돌리기

무동타기를 하는 중간에 버나돌리기를 한다. 해방전에는 이종목을 독립해서 풍물놀이와 떼어서 했으나, 해방 이후는 놀이를 간다히 하여 풍물놀이에 포함시키서 한 일이 많았다. 버나는 밥그릇을 의미한다고 하며 "먹을 것도 없으니 대접이나 돌려 보자."

는 재담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주린 배를 달래는 놀이로 생각된다.

(19) 열두발 상모 돌리기

무동 타기의 중간에 혹은 끝난 뒤에 열 두발 상모를 앉아서, 엎드려 좌우로 외상모와 양상모를 한다. 열두발은 12개월을 의미하고 상모놀이는 적 방어의 무술적 행위를 표현한다고 한다.

(20) 인사굿

처음 인사굿과 반대로 원을 그려 인사한 후 횡대를 지어 상석에 인사한다.

황포 돛배놀이